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각본 · 감독
서 종 현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배경

2004년 11월 2일부터 2004년 11월 4일까지.
가톨릭 위령의 날인 11월 2일을 품는다.
도시의 대성당과 시골의 작은 본당을 오간다.

로그라인

이틀 뒤면 사제서품을 받는 부제 윤성이 대모님의 부고를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남편과 사별한 젊은 엄마 희진을 만나 같은 자살 유가족의 고통을 서로에게 털어내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여동생 다경의 환영과 완전히 작별하며 상실을 치유한다.

인물

윤성(남,27세)
다경(여,20세) / 희진(여,26세)
본당신부님(남,30대)
수녀님(여,40대)
노신부님 / 주교님(남,50대)
예비 신부들과 가족들

S#1 골고다 언덕(외부/7시)

골고다 언덕 앞에 멈춰선 윤성. 높은 계단 위로 십자가를 바라본다. 잘 보니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뒤에 무언가를 보는 것 같다. 빛이 점점 윤성의 얼굴을 올라간다. 햇빛이 윤성의 눈을 삼키는데도 인상을 쓰며 눈을 감지 않으려 노력하는 윤성. 한쪽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린다.

타이틀 <진리는 나의 빛>.

S#2 대성전(내부/10시)

사제 서품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성전. 제단 앞 신성한 무늬가 조각된 나무 의자에는 노신부님이 앉아있고 그의 말에 따라 예비 사제들이 하나씩 호명되며 성수에 손을 씻고제단 앞으로 자리를 옮겨 선다. 제단 앞에는 이미

노신부 안홍 본당 김유민 베드로.

사제1 예, 여기 있습니다!

노신부 평창 본당 이정훈 안드레아.

사제2 예, 여기 있습니다!

노신부 횡성 본당 정윤성 바오로.

윤성 예, 여기 있습니다!

12명의 예비 사제들이 제단 아래 온 몸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의자에서 일어난 노신부님이 향로를 들어 사제들의 머리 위로 향로를 흔든다. 윤성의 머리 위로 찰랑거리는 향로. 그 주위로 공기중에 짙은 연기가 흩뿌려진다.

잠시의 시간 뒤에 문을 여는 수녀님. 비어있는 신도 좌석 앞으로 정식 사제서품식이 아닌 예비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제단 위에서 작은 종을 울리고 있는 신부님. 수녀님이 다가와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윤성을 일으킨다.

수녀 대모께서 돌아가셨답니다.

S#3 작업실(내부/)

책상에 있는 실링왁스, 편지, 그림을 챙겨서 가방에 넣는 윤성. 짐을 챙겨서 나간다.

노신부(O.S.) 친어머니도 아니고, 서품식이 코앞인데 꼭 가야겠나.

윤성(O.S.) 저와 보육원 아이들한테는 친모같은 분입니다.

노신부(O.S.) 추모미사는 본당에서 드릴텐데, 자네는 자네 자리를 지켜야지.

윤성(O.S.) 이들의 말미를 주시면 서품식 전까진 돌아오겠습니다.

S#4 대성당 앞(외부/12시)

윤성이 짐을 챙겨 성당을 떠난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윤성, 11시 58분이다. 윤성이 성당 앞 우체통에 실링된 편지를 넣고 떠나자마자 성당에선 12시에 맞추어 삼일종이 울린다.

S#5 병원 앞(외부/15시) 안정적 도촬 가능한 병원

시골에 하나 있을만한 중형병원 앞. 재떨이통 앞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병원에서 나온 윤성이 잠시 재떨이 앞에 걸음을 멈춰 담배 연기 속에 머문다.

안치실 직원(O.S.) 고인의 시신은 가족분께서 인수해가셨어요.

윤성(O.S.) 가족이요?

S#6 횡성 버스정류장(외부/낮)

버스가 서있는 버스정류장. 버스가 지나간다. 버스에서 내린 윤성.

S#7 대모님 댁 (외부-내부/낮)

오래된 연립주택 대문 앞에서 윤성이 벨을 누른다. 잠시 기다렸다가 반응이 없어 다시 누르고, 또 다시 누르고 연신 벨을 누르는 윤성. 문을 열자 그대로 힘없이 열린다.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가는 윤성.

작은 연립 주택 안, 주방과 거실이 가까이 붙어 식탁으로 쓰이는 테이블 위에 유골함이 올려져 있다. 유골함을 들어보는데 문을 열고 20살 여성 다경이 들어온다.

다경 오빠?

윤성 다경아!

식탁에 앉아있는 윤성. 다경이 웃으며 대모님의 방에서 나와 유품을 추린 것들을 몇가지 보여준다. 윤성은 사진 몇 장과 그을린 낙엽이 코팅된 책갈피를 넘

겨본다. 윤성이 유골함 위에 손을 올리며 묻는다.

다경 오빠 수단 입으니까 멋있긴 하네.

윤성 어떻게 된거야?

다경 오랜만에 보는데 재미 없게.

윤성 나는 아직 뵈지도 못했는데 왜 맘대로 화장을 한거야.

다경 그제... 좀 복잡한데 오면서 산에 나무 까맣게 탄 거 봤어? 그 산, 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윤성 무슨 말이야.

다경 이틀 전에 돌아가시면서 산에 불을 내셨대.

윤성 뭐?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야? 왜, 왜 산에 불을 질러?

다경 대모님이 화장을 선택하신거지.

윤성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 그리고 가톨릭은 매장이 원칙인데, 그렇게 독실한 신자가 화장을 택했다고?

다경 죽은 사람이 화장을 한 게 아니라 죽으려는 사람이 화장을 선택한거야. 직접 사인은 목을 맨거래.

윤성 자살이라고?

다경 그건 나도 모르지. 그리고 보육원 애들 하나 둘 씩 서울 가고, 오빠까지 신학교로 내빼고 나서는 대모님 성당도 잘 안나가셨어.

윤성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다경 왜긴. 우리 남매 정성으로 돌봐주셨는데 찾아뵈지도 않고.

윤성 그렇게 신실하게 살라고 당부하시던 분이 신부 되고 싶다 하니 절연하듯 안보겠다 하셨는데 내가 뭘 어찌라고.

다경 대모님한테 우리가 친아들이고 친딸이었잖아. 그럼 왜 나까지 안보러왔어?

윤성 너도 내가 신학교 들어가는 거 싫어했잖아.

다경 사랑으로 모두를 품겠다는데 오빠 욕심이잖아. 나한테 오빠가 하나뿐인 가족인데 나만 사랑해줄 순 없었어?

윤성 각자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다른 것 뿐이야.

윤성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나가는 윤성의 뒤로 다경이 외친다.

다경 어디가? 오늘 들어올거지? 밥 해 놓을게?

S#8 횡성성당 앞(외부/낮)

시골 본당에 도착한 윤성. 종탑을 올려보는데 종탑 창문으로 다경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다. 눈을 비비고 보니 사라진 다경.

S#9 횡성성당 옆(내부/낮)

위령미사가 끝난 듯한 본당의 모습. 입구에 고인들의 사진과 촛불이 나란히 놓여져있다. 대모님의 사진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윤성.

신부 윤성이니?

윤성 (돌아보며) 신부님!

벤치에 앉는 윤성과 신부.

신부 이게 얼마만에 보는거야, 참. 하도 오랜만이라 윤성이가 성소 받고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이 안나네.

윤성 모레 사제 서품이예요.

신부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이야? 고생 많았구나. 시간이 아주 쏠살같아. / 뒷 모습

윤성 장례미사는 치렀나요?

신부 사도예절만 약식으로 했어. 그렇게 됐다.

윤성 왜요?

신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께 장례미사까지 해드리기가.... 알다시피 그건 ... 죄악이잖니. / os

윤성 평생을 아이들 돌보는 데 헌신한 분께 죄를 물어요? / 마리아상 ins

신부 죄를 묻는 건 하느님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윤성 아무리 자살이 맞다 해도 그건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거잖아요. 대모님이 거둔 아이들만 해도 그 죄값을 치루고도 남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본당에서 미사를 안드릴 수가 있어요.

신부 윤성아, 침착하고. 지금 학교 강당에서 돛자리 펴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화마가 산자락에 놓인 집까지 집어삼켜서 많은 분들이 집을 잃었는데 어떻게 장례미사를 드릴 수 있겠니.

윤성 그럼 애들은요? 대모님이 관리하시던 곳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신부 보육원은 무슨. 요즘 촌에 애들이 있어야지. 진작에 내놔어.

윤성 뭐라고요? 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왜 일이 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성녀나 다름 없는 삶을 사신 분인데.

신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선 죽음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란단다.

윤성이 신부를 쏘아보다 분에 못이겨 본당 밖으로 나간다. 신부가 윤성의 등에 대고 소리친다.

신부 성직자도 고해성사가 필요하단다!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오거라!

S#10 횡성성당 앞(외부/저녁)

본당을 나서는 길, 윤성이 종탑 앞에 서서 다시 종탑을 올려다본다. 종탑 위에 또 다경이 보인다. 눈을 다시 비벼보는데 다경이 그대로 있다. 종탑으로 뛰어 들어가는 윤성.

S#11 종탑 안(내부/저녁)

종탑에 오르다가 창밖을 보니 현기증이 오른다. 계단과 사다리를 올라 종탑 위까지 올라간 윤성이 다경의 어깨를 잡아챈다. 무너질듯한 표정으로 눈물을 펄펄 흘리는 26살 여성 희진.

S#12 거리(외부/밤)

가방 속에서 물통을 꺼내주는 윤성.

윤성 마셔요. 탈수 와요.

희진이 물을 받아 마신다.

윤성 올라가지 마세요 이제.

희진 성당에서 소란 피울까 걱정되세요?

윤성이 반걸음 앞서 희진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다.

윤성 (희진을 보며) 자매님이 걱정돼서 그러죠.

희진 죄송해요 신부님.

윤성 아직 부제예요, 예비 신부요. 자매님, 무슨 일이에요?

희진 별 일 없어요. 남편이랑 미사드리러 왔다가 올라가서 별을 보곤했는데. 그 때 생각이 나서요.

윤성 남편은 어디 계시고 혼자 오셨어요.

희진 음... 밤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별 보고 가려 했었죠.

윤성 네? (갑자기 너무 한적한 길로 들어서서) 이 길 맞아요?

S#13 희진의 집 앞(외부/밤)

윤성이 놀란 얼굴로 외경을 바라본다.

윤성 여기, 제가 자란 곳이에요.

한 두 걸음 집을 향해 걸어가는 윤성.

희진 본당에서 제가 잠깐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윤성 (웃으며) 친구들 다 잘 지내려나.

희진 얼마만에 오시는거예요.

윤성 십 년 다 되죠.

희진 오신 김에 잠깐 들렀다 가시겠어요?

윤성 그래도 될까요?

S#14 희진의 집 2층(내부/밤)

한쪽 벽에 가득한 낙서. 다경이 어렸을 적 썼던 낙서가 보인다. ‘오빠 바보’

윤성 제 여동생이 적은거예요.

희진 저도 남편이랑 이길로 장난 쳤었던 기억이 나네요. 세상 오빠들은 다 바보라고.

윤성 정말 그런가봐요. 남편 되시는 분은 어디 가셨나보네요.

희진 그러게요. 언제 돌아오려나...

사이

희진 저... 부제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S#15 희진의 집 1층(내부/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희진과 윤성.

윤성 실례하겠습니다.

천문 사진이 뻑뻑이 걸려있는 집.

희진 밑에는 많이 바꿨죠? 이것저것 들이고 빼다 보니까….

윤성 바꾸셔야죠.

잠시 뒤, 집 안에 있는 현상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희진과 윤성. 파란 암실에 약품과 건조대에 걸린 필름들이 즐비하다. 현상된 필름을 패드 위에 여섯 컷씩 잘라 올린다.

희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가끔 후회해요.

윤성 뭘요?

희진 사진이요.

윤성이 필름 한 쪽을 집어 자세히 보기 위해 한 켠에 켜둔 하얀 라이트 앞에 가져다 댄다.

희진 그렇게 하면 잘 보일 것 같죠?

윤성이 손을 뻗 필름을 바라본다. 찍혔던 흔적들이 새하얗게 사라져버린 필름.

윤성 아… 죄송해요.

희진 남편을 되뇌어 보려고 하면… 그렇게 한 장면씩 지워져요.

감광지를 약품 속에서 집게로 뒤적거리는 희진. 인화된 사진을 건조대에 건다. 하얀 감광지에 피사체가 그려지는 것 같다.

희진 많이 찍어놔야 했는데.

윤성 왜요? 남편분께 무슨 일이 있나요?

희진 그걸 찾으러 왔어요. 근데 도저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찾다 찾다… 어찌다보니 여기 살게 됐어요.

윤성 돌아가신건가요?

희진 고향에 잠깐 다녀온다고 하더니, 배를 타고 나갔대요. 근데 물고기 잡은 건 한 마리도 없고 낚시대 아래 신발만 남겨져 있었다네요.

윤성 어찌다….

희진 글세요. 남편은 원래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들조차 불쌍해했어요. 부제님, 만약, 만약 스스로 뛰어든거면 남편은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요?

윤성 ….

희진 천주교에서 자살은 큰 죄라면서요. 저는 남편이 어디에 있더라도 찾으러 가고 싶어요. 그곳이 어디든.

남편과 희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현상되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S#16 대모님 댁(내부/밤)

식탁에 빈 그릇 몇 개와 수저 두 벌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팔을 괴고 누워 잠든 다경. 유골함은 빈 의자 위에 올려져 있다. 윤성이 집 안으로 들어와 다경을 깨운다.

윤성 뭐해? 들어가서 자지 않고.

다경 (잠에서 깨어) 오빠 왔어? 밥 먹어야지.

윤성 시간이 몇 신데 밥은...

다경 저녁 안먹었지? 잠깐 기다려봐.

윤성 (손을 저으며) 아니, 아니 괜찮아...

다경 앉아봐 얼른.

윤성은 식탁에 앉아있고 다경이 음식을 준비한다. 냉장고에서 찬을 내오고 찌개를 끓여 내놓는다. 다경도 식탁 의자에 앉아 윤성이 수저를 들길 기다린다.

다경 오빠 좋아하는 것들이지 다? 어때?

윤성 (힘들게 오물거리며) 맛있네….

혼자 방에 들어가 스탠드를 켜놓고 편지를 쓰는 윤성. 문 밖에서 다경이 방문을 두드린다. 급히 편지지를 가리는 윤성.

다경 오빠 들어가도 돼?

대답도 전에 문이 열리고 베개와 이불을 들고 들어오는 다경.

다경 오늘 같이 자면 안될까?

다경이 말하며 윤성의 이부자리에 눕는다.

다경 내일 장지 가야지. 얼른 자자.

윤성 조금 이따가. 할 게 있어서.

다경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윤성 먼저 자.

다경 싫어. 같이 잘래.

윤성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편지를 다시 꺼내 적는다. 대강 마무리하고 다경을 보는데 새근새근 잠들어있다. 다시 편지지를 꺼내 마저 쓰고 다경의 옆에 함께 누워 동생의 머리칼을 넘긴다.

S#17 대모님 댁(내부/새벽 어스름-저녁촬영)

자리에서 깨어난 윤성. 잠들 때와 달리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있는 윤성. 다경이 없어 몸을 일으켜 방을 둘러보다 거실로 나가본다. 때마침 문을 열고 묘목을 안은 채 들어오는 다경.

S#18 산 오르는 길(외부/새벽 어스름-저녁촬영?가능?낮으로 변경?)

아직 별이 보이는 새벽 어스름, 산을 오르는 윤성과 다경. 윤성은 가방을 메고 물이 든 말통과 삽을, 다경은 묘목을 들고있다. 앞서가던 윤성이 다경을 돌아본다. 멈춘 윤성을 앞지르는 다경.

S#19 타버린 산(외부/낮)

타버린 나무들과 황량한 땅에 잿더미만 남은 산자락에 오른다.

윤성 이게 무슨 일이야.

다경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건지.

윤성 우리 자주 오던 곳인데... 다 타죽어버렸잖아.

다경 오빠. 죽은 게 아니라 나무가 연기를 타고 별들을 만나러 간거야.

다경은 나뭇가지에 묶인 타다 남은 올가미와 대모님의 구두 한 짝을 허리 숙여 줍는다. 윤성은 묘목을 내려놓고 다경이 들고 온 삽으로 땅을 판다. 함께 힘을 합쳐 척박한 땅 위에 들고 온 묘목을 심으며 다경이 말한다.

다경 오빠. 대모님은 훌륭한 분이었으니까 천국에 갔을거야.

윤성 그럴지도 모르지.

다경 천국에 가면 행복할까?

윤성 그럼...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거니까.

다경 근데 오빠.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사람들이 지옥에 남겨지는 것도 그분의 뜻이려나.

윤성이 아무말 않는다. 이어서 구덩이 속에 묘목을 넣고 뿌리를 자리잡은 뒤 유골함을 올리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나무로 된 위패를 묘목에 걸고 종부성사를 하는 윤성.

윤성 주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쁨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모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윤성과 다경이 서로를 애처롭게 바라본다.

S#20 계곡(외부/낮)

산을 내려오는 윤성과 다경. 그들이 걸어내려오는 길 옆으로 계곡물이 흘러 내린다.

다경 나는 오빠가 나때문에 도망친거라고 생각해.

윤성 또 무슨 소리야.

다경이 멈춰 윤성을 바라본다.

다경 왜 날 두고 갔어? 내가 힘들게 해서?

윤성 그런거 아니야.

다경 그럼?

윤성 성당에서 우릴 그렇게 보살펴줬는데, 갇아야지.

다경 그럼 왜 그동안 본당에도 안찾아왔는데.

윤성 ... 바빠서 그랬어.

다경은 윤성의 손을 잡고 계곡으로 데려간다. 다경이 검댕을 묻은 윤성의 손을 잡고 계곡물에 담근다. 다경이 윤성의 손을 씻기지만 때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

다경 어렸을 때 오빠가 자꾸만 산에 데려와서 엄청 투덜거렸었는데. 근데 나 그게 그렇게 그리더라. 나 혼자서는 못가겠고. 그 땐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윤성 지금 같이 왔잖아.

다경 내가 없었어도 오빠는 신학교에 갔을까?

다경이 신을 벗고 맨발로 계곡물에 발을 담근다. 찜병이지 않고 물을 찰랑이며 걸어다니는 발과 아름답게 움직이는 몸짓. 윤성이 다경을 바라본다.

다경 그게 벌써 7년전이야.

윤성 7년이나 됐나.

다경 두어달 전 같지?

다경이 윤성의 손을 이끌어 계곡물로 당긴다. 윤성은 어, 어 하며 끌려가더니 급히 구두를 벗어내고 물 속에 발을 담근다. 미처 걷지 못한 수단 자락이 젖는다.

다경 나, 좀 변했어? (윤성의 반응을 기다리다가) 변했지?

윤성 (얇미운 웃음을 지으며) 좀 변했나? 그대론가?

다경이 웃으며 윤성에게 물을 뿌린다. 윤성도 다경에게 물을 뿌린다. 윤성의 수단도, 다경의 옷도 흠뻑 젖어버린다. 그러다 예전에도 그랬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서로 두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윤성 잘 좀 해봐.

다경 오빠가 돌아야지.

윤성 운동회 때 포크댄스 혼자 틀려가지고 숨어서 연습하겠다고 산에 오자고 한 건 너였잖아.

다경 내가 숨어서 하자고 했지, 산에 오자고 했어?

맞잡은 손에 수단 옷소매가 흘러내려 윤성의 손목시계가 보인다.

다경 다 해진걸 왜 아직도. 더 좋은거 하지.

윤성 누가 사준건데. 난 이게 제일 좋아.

다경 (투명한 물 아래 윤성의 두 발을 밟아 오르며) 나도 좋아.

S#21 나무 아래(외부/낮)

계곡 옆 나무 아래에 앉은 윤성과 다경. 윤성이 코트를 벗어 다경의 어깨를 감싸준다. 다경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어깨를 떤다. 다경은 물에 젖은 눈을 들어 윤성을 한 번 쳐다보았을 뿐 윤성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다. 다경의 이마에 손을 대보는 윤성.

윤성 옷 마르면 얼른 내려가자.

다경 오빠, 나는 이 산이 너무 좋았어.

윤성 산은 조금 아픈 것 뿐이니까 금방 푸르게 돌아올거야.

다경 금방은 아닐거야. 어찌면 영영 못돌아올 수도 있고.

윤성 아냐 분명 돌아와.

다경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윤성 안 그럼 나는 못견딜 것 같아.

다경이 윤성의 가슴에 안겨 심장소리를 세 번 듣는다.

다경 심장 뛰는 소리를 세 번만 들으면 지금 오빠가 어떤지 알 수 있어.

터질 것 같은 윤성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잠에 드는 다경. 그런 다경을 윤성이 지켜보다가 다경과 머리를 맞대고 잠시 잠에 드는 윤성.

BLACK OUT :

잠시 뒤, 건너편에 나있는 창으로부터 해가 들어와 윤성의 얼굴 위로 점점 기어오른다. 별이 입에서 코, 코를 넘어 눈까지 오자 눈을 뜨는 윤성. 다경이 없다. 가방을 챙겨 묘목 앞으로 가는 윤성.

S#22 타버린 산(외부/낮)

묘목에는 아까 걸어놓은 대모님의 위패 뿐만 아니라 그을리고 타버린 다경의 위패도 걸려있다. 합장하며 기도를 한다.

S#23 횡성성당 옆(외부/노을)

추모함에서 다경의 사진액자를 꺼낸다. 액자에서 사진을 빼내는 윤성.

S#24 시골 본당(내부/해지는 저녁)

시골 본당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윤성. 윤성이 고개를 돌려 이중유리문을 열고 들어간다. 잠깐 멈추어 윤성이 말한다.

윤성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성이 십자가를 노려보며 걸어간다.

윤성 대모님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게 두었습니까. 이것도 다 당신의 뜻입니까? 다경인 겨우 스무 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시련 속에 던져놓고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칭송한 것 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하루에도 사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들이 전부 죄인인가요? 아니면 저를 벌하려 제 곁을 괴롭히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으라고 앵무새같이 떠들면서 당신의 존재를 두 눈 부릅 뜨고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죄인을 벌하여 주시지요!

품에서 편지를 꺼내 다경의 사진과 함께 불이 붙은 양초 위에 올린다. 타들어 가는 연기를 바라보다 뒤를 돌아보는 윤성. 뒤를 돌아보니 희진이 가만히 서서 보고있다. 다가오기 시작하는 희진을 바라보며 얼어있는 윤성. 희진이 윤성의 앞까지 와 두 손을 윤성의 어깨에 올리고 아래로 낮추게 한다. 무릎을 꿇게 하더니 윤성의 머리를 품에 안는 희진.

S#25 밤바다(외부/밤)

밤바다를 나란히 걷는 윤성과 희진.

희진 너무 좋죠? 남편이랑 연애했 때 종종 오던 곳이에요.

윤성 좋네요. 춤지도 않고.

희진 발자국을 남겨도 금방 지워져요. 그게 재밌어서 남편이랑 손잡고 춤도 추고 했는데.

윤성 (희진을 바라보며) 춤이요?

희진 (작은 웃음소리를 내며) 사실 춤이라고 하긴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남편 신발을 태워 보내줬어요. 제가 자주 오려고요. 천주교 신자는 이렇게 뿌리면 안된다고 하던데.

윤성 (망설이다) 잘하셨어요.

희진 동생분은 어찌다...

윤성 글썄요. 7년 전에... 자매님이 올라선 그 종탑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신 학교 들어가고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나봐요. 그게 아닌데.

희진 ...

윤성 그래서 다시 오게 두려웠어요. 신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될 것 같아서 용기내서 내려와봤는데...

희진 부제님은 이름이 뭐예요?

윤성 바오로요.

희진 세레명 말고 진짜 이름이요.

윤성 ... 윤성이요.

희진 윤성씨는 여기 언제까지 머무르세요?

윤성 내일 아침에 돌아가야죠.

희진 그렇게 금방이요?

윤성 사제 서품이 내일이에요.

희진 ... 가실거예요?

윤성이 희진을 바라본다. 희진이 미소지으며 손을 내민다. 윤성이 희진의 손을 바라본다. 두 손을 잡고 왈츠를 추는 희진과 윤성.

S#26 종탑 안(외부/밤)

(종탑 아래에서 그 위를 올려다보는 윤성. 희진이 윤성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종탑으로 들어간다.)

벽에 적힌 ‘오빠 바보’ 낙서.

종탑 꼭대기.

희진 남편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끔 기도했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요. 바보같이.

희진 좀 우습지만 저도 믿지 않았던 것들을 믿고 싶게 돼서, 햇살이 내릴 때 별빛이 가릴 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윤성 지금도요?

희진 남편 일이 있고 나서도 그냥, 계속 성당에 나왔어요. 사납게 설켜있는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윤성 신앙 속에서 안식을 찾으셨나요.

희진 근데 저는 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은거지, 신을 믿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윤성 하느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바라십니까.

희진이 종탑의 창문을 연다.

희진 신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윤성씨는 작고 약하지만 아름다운 안을 가졌어요. 그 자체로도 반짝이는걸요.

희진이 한칸 더 위에 쪽문을 바라보았다가 윤성을 보고 말한다.

희진 나가서 보실래요?

S#27 종탑 외부(수선관 옥상/외부/밤))

외부에 만들어진 사다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는 윤성과 희진. 자유롭게 펼쳐진 나무 위로 까만 밤하늘이 보인다. 무서워 다리를 떠는 윤성.

윤성 (감탄하며) 아….

희진 올라올만 하죠?

윤성 그래도 무서워요.

희진 엄살은….

윤성 자매님…. 저는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희진 윤성씨는 지금 비틀대면서도 똑바로 서 있는걸요.

윤성이 희진을 바라보다 안정을 얻고 손목시계를 푼다. 윤성이 희진의 왼손을 가져와 시계를 건넨다. 희진이 손목시계를 귀에 갖다댄다. 짹짹이는 초침소리.

윤성 당신 이름은요?

희진 희진이요.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

DISSOLVE TO:

S#28 희진의 집(내부/새벽-저녁촬영)

천장에 붙어있는 별모양 야광스티커들. Tilt down. 아주 약한 붉은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보인다. 희진이 잠든 침대 위로 해가 점점 올라온다. 희진의 눈까지 해가 올라오자 잠에서 깨어나는 희진. 거실로 나가보는 희진. 거실 한 가운데에 이젤과 캔버스가 있다. 캔버스에 그려진 희진의 모습.

S#29 작업실(내부/9시)

짐을 푸는 윤성. 짐꾸러미에서 물건들을 꺼내다가 사진이 한장 나온다. 희진의 집에서 찍힌 윤성의 모습. (원래 대성전 종소리? 첨가?)

S#30 희진의 집 1층(외부/낮)

반송 도장이 찍힌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희진. 방 한 구석에 올려둔 종이 박스 안에 윤성이 쓰는 실링왁스가 뜯어진 수많은 편지들이 있다. 실링왁스가 뜯어진 새 편지를 넣는다. 모든 편지가 발신주소로 보육원이 적혀있다.

S#31 대성전(내부/10시)

종이 치고 나서 사제 서품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성전. 향로에서 피어나오는 연기로 좁지 않은 공간이 가득차있다.

제단 앞 신성한 무늬가 조각된 나무 의자에는 노란 옷을 입은 주교님이 앉아있고 그의 말에 따라 예복을 입은 예비 사제들이 하나씩 호명되며 성수로 손을 씻은 뒤 제단 앞으로 자리를 옮겨 선다.

주교 안홍 본당 김유민 베드로.

사제1 예, 여기 있습니다!

주교 평창 본당 이정훈 안드레아.

사제2 예, 여기 있습니다!

주교 횡성 본당 정윤성 바오로.

윤성이 말 없이 일어서 성수에 손을 씻는다. 손톱에 낀 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본다. 그러다 문을 열고 나간다. 열린 문 밖으로 나오는 윤성만 있을 뿐 그 안으로 희진은 보이지 않는다. 성당 마당 한 가운데에서 성직칼라(목에 두른 하얀 띠)를 뜯어버리는 윤성.

S#32 타버린 산(외부/낮)

아침, 물동이를 들고 산에 올라 묘목에 물을 주는 희진. 손목에 보이는 윤성의 시계. 희진이 물을 주고 간 묘목 옆 불모지에서 작은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